



일본 정부, 치과의사에 코로나19 검체 채취 한시적 허용

기사입력 2020-04-26 23:08



코로나19 확산세에 견줘 의심환자 검사 체계가 미비하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 일본 정부가 검사 건수를 늘리기 위해 치과의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후생성)은 26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PCR(유전자증폭) 검사에 필요한 검체 채취를 일반의사 외에 치과의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6일 PCR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 '하루 2만 건 검사 체제'를 갖추겠다고 공언했지만, 검체 채취 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이달 중순 기준으로 하루 9천 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생성은 입안의 검사와 치료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치과의사의 검체 채취를 인정해 검

사 건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후생성은 다만 검체 채취 과정에서도 감염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치과의사가 관련 교육과 연수를 받고 수검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토록 했습니다.

또 치과의사가 검체를 채취하지 않으면 검사가 어려운 경우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후생성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수습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로 이번에 마련한 지침을 시행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검체를 분석하는 일까지 포함하는 PCR 검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지방위생연구소와 보건소 중심으로 이뤄지다가 검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회사와 지역 의사회로 업무위탁이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모두 함께 지켜요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유증상자 예방수칙	유행지역 예방수칙
<p>등교·출근하지 말고 외출 자제</p> <p>증상이 심해지면,</p> <p>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문의</p> <p>② 선별진료소 방문</p>	<p>· 외출 및 타 지역 방문 자제</p> <p>· 격리자, 방역당국 지시 따르기</p>

SBS NEWS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 [구독 이벤트] SBS뉴스 구독하고 선물 받아보세요!

▶ 코로나19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55&aid=0000810628>